



드로잉 퍼포먼스 서울문화재단 주최로 22일 서울시청 시민플라자에서 열린 '바람난 미술' 전시 개막식에서 '액션드로잉 히어로'가 미술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전 시장을 나온 미술, 예술이 넘치는 거리'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오는 31일까지 열린다. 입장료는 무료다. 서영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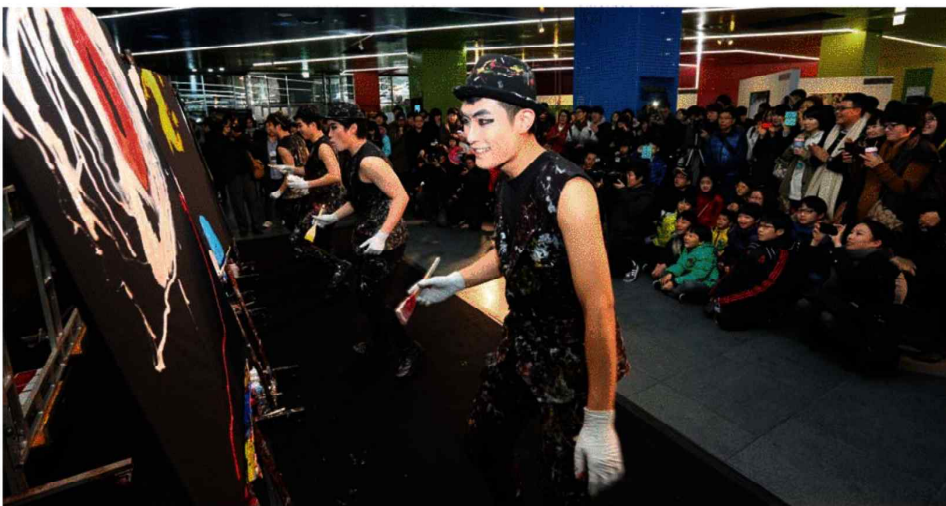
시청앞 하늘 나는 우산 시민들이 22일 서울시 신청사 지하 1층 시민플라자에 설치된 이경효 작가의 우산 작품 아래에서 계단을 오르고 있다. 서울문화재단은 '바람난 미술'을 주제로 오는 31일까지 시민플라자에서 무료 전시회를 연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서울시청사서 '바람난 미술' 전시장을 나온 미술, 예술이 넘치는 거리를 슬로건으로 내건 아트캠페인 '바람난 미술'이 22일 서울시 새청사 시민청 시민플라자 지하 1층에서 개막해 시민들이 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작가 45명이 63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이 전시는 31일까지 열린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아시아투데이

2013년 01월 23일 수요일 019면 사회



“바람난 미술, 공짜로 관람하세요”

22일 서울시청 시민플라자에서 열린 '바람난 미술' 전시 개막식에서 액션드로잉 '히어로'가 라이브 드로잉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서울문화재단은 '전시장을 나온 미술, 예술이 넘치는 거리'라는 슬로건으로 아트캠페인 '바람난 미술' 전시를 31일까지 시청 시민플라자에서 무료로 개최한다. /연합